

윤주산만타키 폭포

윤주산만타키 폭포는 이 산책로의 마지막 주요 폭포다. 폭포의 이름인 ‘윤주산만’이란 ‘43 만’이라는 의미로서 하루에 흐르는 평균 수량이 43 만 석(7 만 8 천 톤)인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. 폭포의 중간 정도까지 바위들을 디디고 들어갈 수 있으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 이 주변 산의 표면에는 따뜻한 하류 지역에는 없는, 서늘한 기후가 필요한 전나무와 비자나무 등의 침엽수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